

붙임 1.

2020년 제6회 경관위원회(소위원회) 개최결과



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

2020년 제6회 경관위원회(소위원회) 개최결과

□ 심의기간: 2020. 5. 11.(월) ~ 5. 18.(월)

□ 심의방법: 서면심의

□ 참석위원: 7명

○ 권혁철(위원장), 김정곤, 김평, 탁영식, 김국선, 박경탁, 홍승대

□ 상정안건: 심의2건, 자문1건

안건 번호	안 건 명	결 과	제출부서
1	인천광역시 루원시티 중심1블럭 숙박시설 신축공사	조건부의결	서구 도시재생경관과
2	여의주택재개발 정비사업	조건부의결	미추홀구 도시정비과
3	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테크 조성사업	자문	시 해양친수과

□ 기타의견 검토

○ 제1호, 제2호 안건은 조건부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2020. 6. 19.
(금)까지 조치계획을 제출하기 바람

*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,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.(국토교통부, 경관심의 운영지침 1-2-4.)

□ 의결내용

제 1 호	인천광역시 루원시티 중심1블럭 숙박시설 신축공사
결 과	조건부의결
심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면계획 시 굴곡이 많은 입면에 대한 음영이지지 않도록 밝은 색채계획 필요 ○ 루원시티 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숙박시설로써의 FACADE 입면구성 필요 ○ 보행 연결통로의 조형성 강화 등 중심가로경관을 형성하는 부지 동측부에, 해당지역의 경관성과 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계획 보완 ○ 부지 동측 문화공원-1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계획에서 지상2층 보행연결통로를 지상1층 상가로 연결시켰으나, 실내를 통하지 않는 외부공간간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보완이 필요 ○ 디자인 방향 및 사인물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향안내사인(Pole형, 종합형)에도 픽토그램이 들어가면 정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○ 지하 주차장 색채는 L층과 B2층, B1층과 B3의 색상 구별이 쉽지 않아 주차 후 다른 층으로 기억될 수 있으므로 색상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색채계획 필요 ○ 학령인구유발 여부 등 검토필요

제 2 호	여의주택재개발 정비사업
결 과	조건부의결
심의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생시설의 입면디자인 재질 색상이 공동주택의 입면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할 것 ○ 획지4(근린생활시설부지)의 경우 도로와 면한 공간의 보행안정성 강화방안(주차지양 등)과 가로경관 개선방안(화단조성 및 조경식재 등)을 검토바람 ○ 재개발 이전에 보행자들이 대상지 내 소로를 이용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재개발 이후에도 이들의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에 반영 필요 ○ 도시경관 측면에서 옥탑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존 공동주택의 옥탑부에 생성된 성곽형태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입면 구조와 연계된 패턴화 권장 ○ 옥탑부 조명은 LINE형태의 선 조명이 아닌 면조명의 형태를 반영하여야 유지관리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○ 행정복지센터와 근생시설의 경관이미지는 공동주택 부분과의 통합적 입면구성으로 도시경관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람

제 3 호	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테크 조성사업
결 과	자문
자문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데크 내 보행자들의 안전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명등 및 CCTV 설치계획 필요함. ○ 데크 내 모든 시설물(난간, 벤치, 안내사인, 쉼터 등)에 인천광역시 의 이미지통합(CI)전략이 반영된 세심한 디자인 적용 검토 ○ 데크 내 적절한 위치에 교육용 콘텐츠(어린이, 청소년 등 계층별) 게시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다음장에 계속></p>

- 보행권을 고려한 시설 집적화방안 검토 요망
 - 집중배치: 분산된 시설을 2곳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
 - 포켓광장, 만남의 광장을 휴식 및 체험광장에 모아서 배치
 - 필요 시 부인교 전망대 벤치 보강
- 계획의 구체화를 진행함에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시설이나 배려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진행하면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
- 계획 대상지의 지반 표고와 지하수위의 차이는 2.2m~2.3m 정도이고 대상지의 선형을 따라 해송식재가 계획되어 있음. 해송이 염해에 강하다고는 하나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수목 뿌리에 미칠 직접적인 염해의 피해에는 취약할 수 있음. 현재의 지하수위에서 두께 0.5m정도의 영구배수층을 두어 뿌리분의 염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.
 - *영구배수층: 모세관현상에 의해 상승하는 해수를 차단하는 층, D30~40mm 자갈 또는 쇄석을 0.5m 정도로 포설하고 그 위아래에 부직포를 씌움. 0.5m의 영구배수층을 두더라도 그 위에 지반표고까지 1.5m이상의 유효토심이 있으므로 해송식재가 가능함.
- 난간의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. 투명난간과 연결 부분에서 부조화 발생
- 그늘쉼터의 설치위치를 고려할 때 하절기 태양빛을 피하기 어려움
- 이용객이 놓는 행위를 유도하는 시설물은 지양
-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명 설치 필요
- 플랜트 박스의 디자인 및 재료 제시 필요
- 스톤벤치의 디자인 및 정확한 재료 제시 필요
-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간 동선 중복 차단을 위한 경관 조명(환경친화적) 필요